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주란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뿌리를 내리고 자기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집 밖의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평화와 안정의 공간인 집의 보호를 받게 되며, 자기 삶의 중심인 집에서의 체험이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의 참된 의미는 인간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① 인간은 집 밖의 세상에서만 평화를 얻어야 한다.
- ② 거주의 참된 의미는 체험이 아닌 장소에 의해 결정된다.
- ③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 ④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거주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집은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주는 고립된 공간이다.

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올바른 소비는 소득 범위 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재화를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행위로 여긴다.

을: 올바른 소비는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욕구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고려하며 환경, 인권, 정의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 ① 갑은 소비의 효율성이 아닌 소비자의 욕구 충족만을 강조한다.
- ② 갑은 타인과의 동일시를 위해 유행에 따르는 소비를 강조한다.
- ③ 을은 윤리적인 가치를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강조한다.
- ④ 을은 공동선보다 개인의 선호를 우선시하는 소비를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편의의 극대화가 소비의 유일한 목적임을 강조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이 모두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가 지혜를 알려고 한다면,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을: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완전한 상실이기 때문이다.

- ①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활동이 정지되는가?
- ②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는가?
- ③ 죽음 이후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구별할 수 없는가?
- ④ 죽음은 참된 진리의 인식을 방해하는 계기가 되는가?
- ⑤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4.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와 그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연구 결과의 활용과 그 책임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

을: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를 인류의 복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진리를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활용이 인류와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숙고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과학자는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ㄴ. 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ㄷ. 을: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윤리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ㄹ. 갑, 을: 과학자는 인류의 복지 향상을 연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5.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람이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께

지난 편지에서 선생님께서는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교육 복지 사업 지원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략)

〈보기〉

- ㄱ.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은 양립할 수 있다.
- ㄴ. 기업은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 ㄷ. 기업의 자선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ㄹ. 기업은 법을 지키며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향을 지닌다. 모든 공동체는 선(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되며, 최고의 공동체인 국가는 구성원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인간은 생명 보존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통치하는 권리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한다.

<보기>

- ㄱ.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 ㄴ. 갑: 국가는 구성원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 ㄷ. 을: 국가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형성된다.
- ㄹ. 갑, 을: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화 산업으로 전락한 대중문화는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존재하며, 문화 산업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문화 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문화 상품을 표준화할 수밖에 없으며, 표준화된 문화 상품은 대중을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욕구마저 조종하고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대중은 문화 상품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고, 도피를 꿈꾸며, 적극적인 사유를 할 수 없게 된다.

- ① 문화 산업은 대중을 수동적 문화 소비자로 전락시킨다.
- ② 문화 산업은 표준화 전략으로 획일화된 상품을 생산해낸다.
- ③ 문화 산업의 성공은 상업성이 아닌 예술성이 의해 결정된다.
- ④ 문화 산업이 성장할수록 대중의 사회 비판 의식은 약해진다.
- ⑤ 문화 산업은 대중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둔화시킨다.

8.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자기를 이겨 내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天下)가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나)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도(道)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 내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일거리를 없애기 때문이다. 일거리를 만들면 천하를 차지할 수가 없다.

- ① (가)는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 ② (가)는 사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 ③ (나)는 천하를 얻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함을 강조한다.
- ④ (나)는 인위적 강제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 ⑤ (가), (나)는 수양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킨다. 을: 동물을 조작하고 스포츠나 돈을 위해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행이 문제이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삶의 주체라면 자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병: 대지 윤리가 흙과 물, 식물과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지 윤리는 그들이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친명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법례> A ~ F: 비판의 방향</p> </div> <div style="width: 45%;"> <p><예시> (갑) → A → (을) A는 같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보기>

- ㄱ. B: 성장한 포유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 ㄴ. D: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
- ㄷ. A, F: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ㄹ. C, E: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장한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면, 인간 생명의 시작인 배아 역시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서 배아는 존중의 대상이지만, 성장한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아 실험을 불치병 치료와 같은 중대한 목적으로 허용한다면, 배아에 대한 존중과 배아 실험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보기>

- ㄱ. 갑: 배아가 지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ㄴ. 을: 배아는 성장한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ㄷ. 을: 배아 실험은 그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ㄹ. 갑, 을: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므로 존중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3

11. 그림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장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처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처벌보다 더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형은 사회 계약에 위배되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① 갑: 응분의 보복만이 처벌의 정당한 근거이다.

② 갑: 공익의 증진이 처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④ 을: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 사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처벌은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언제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되어야 하며, 오직 보복법을 통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살인범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이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습니다.



13. 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물론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댓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용자가 도덕규범을 내면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덕규범의 내면화로는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해악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가상 공간에서는 ① 고 본다.

- ① 자율적으로 도덕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 ② 비도덕적 행동을 제재하는 강제적 수단이 요구됨을 간과한다
- ③ 자율적 규제보다 타율적 규제가 효과적 해결책임을 간과한다
- ④ 법적 규제를 통해 악성 댓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도덕규범의 내면화로 해악 금지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2. 갑은 궁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의 수가 부족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되면, 장기 이식 대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을: 장기 기증과 수요의 불균형이 사회 문제인 것은 맞지만,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인 뇌사를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갑: 아닙니다.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은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살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다양한 장기의 상호 작용으로 유지되므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심폐사만이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① 장기 수급의 불균형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가?
- ② 살아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가?
- ③ 뇌사보다 심폐사가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타당한가?
- ④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도 살아 있는 존재인가?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한 개인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을: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이러한 원칙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재화의 분배는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 ① 갑: 소득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한다.
- ② 갑: 최소 국가는 부정의한 분배 상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
- ③ 을: 원초적 상황의 개인은 타인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
- ④ 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갑, 을: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불평등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된다.

15.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문 칼럼 0000년 0월 0일
오늘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기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실험이 늘고 있다.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불필요한 실험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면 동물 실험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실험의 전 과정에서 동물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물을 이용한 실험의 정당화가 가능하다. …(후략)

<보기>

- ㄱ. 동물 실험의 과정에서 윤리적인 성찰을 배제해야 한다.
- ㄴ. 동물 실험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 ㄷ. 동물 실험에 앞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ㄹ. 동물 실험이 주는 효용을 따져 실험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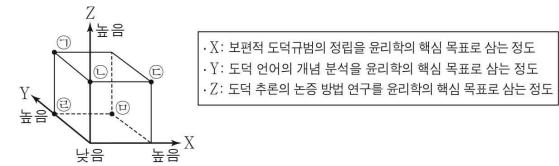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⑤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신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탐구하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효란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부모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봉양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효를 행했다고 할 수 없다.
-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으로 행동하면서 공경[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친구를 대하면서 공경함이 없으면 그 잘못은 부모에게 돌아가니 이는 효라고 할 수 없다.

<보기>

- ㄱ. 부모의 잘못에 대해 간언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에 어긋난다.
- ㄴ.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효의 실천 방법이다.
- ㄷ. 자신의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무관하다.
- ㄹ. 부모에 대한 존경 없이 물질적 봉양만으로 효를 행하면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모든 사회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만한 능력이 극히 부족하며,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은 합리적인 권리 및 선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	✓		✓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다.		✓			✓	✓
집단 간의 문제는 도덕적 설득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	
도덕적 개인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시행되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위법적인 것이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② 갑: 시민 불복종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모든 법에 대한 비공개적 저항이다.
 ④ 을: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합법적 행위이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은 그 자체로 숭고하므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동정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이다.

<문제 상황>



- ① 자신의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라 기부를 실천하렴.
 ② 기부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계산하여 행동하렴.
 ③ 이웃을 돋는 기부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을 따져 행동하렴.
 ④ 공동체에서 유덕하다고 여기는 품성을 본받아 기부를 실천하렴.
 ⑤ 동정심에서 비롯된 기부 행위는 그 자체로 옳다는 점을 명심하렴.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